

## 강보현(사법연수원 동기) 1차 구술

1. 구술자: 강보현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6월 14일
5. 구술장소: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
6. 구술분량: 03분 16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판사로서 지켜본 초기 변호사 시절 면모

구술자 : 나중에 인재 제가 부산법원 판사하면서<sup>1)</sup> 노무현 변호사의 커가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달라져가는, 변모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그 예를 들어서 전문, 그 당시에만 해도 법조인이 특히 변호사가 전문 영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세 쪽을 표방하고 또 공부하면서 각종 관례나 실무계를 습득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내가 감탄한 적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꽤 사건을 많이 했어요. 기억나는 게 대구고등법원이, 그때 인재 행정사건을 부산고등법원이 없을 때라 대구고등(법원)에 가가지고 하는데. 부지런히, 하여간 대구를 거의 매일같이 오고 갈 정도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럼요, 우리 법정에도 들어왔죠. 들어왔죠. 사건이, 사건이 많고, 또 전체 변호사 수가 그렇게 지금에 비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당사자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서 만나는 모습이 그렇게 무슨 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 건.

면담자 : 법정에서 변론하시는 모습 같은 건 어땠나요?

구술자 : 아, 다른 면이, 다른 사람들은 눈치 챘는지 모르겠는데 좀 엿보였어요. 뭐냐면은 오래된 관행 같은 거 있잖아요. 관례나 관행 같은 거, 실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있는데. 그냥 전수받고 배우면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법리를 따지고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하는 일에 상당히 역량을 쏟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

1) 구술자는 1980년~198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때문에 1978년 5월 부산에서 개업한 노무현 변호사와 교류도 계속됐다.

면담자 :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건 없으십니까? 사건이라든가

구술자 : 사건이 아니라 절차에 관해서. 하여튼 소송절차에 관해서 당연히 우리가 관례, 관행 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던 부분들을 옳지 않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일단은 법원으로서는 싫죠, 그런 지적을 받으면. 그런데 그런 지적을, 다른 변호사들은 알거나 또는 모르거나 아니면 안다하더라도 재판부에 폐스럽다 싶어서 안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좀 미움까지 는 아닌데 하여간 주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 ■ 구술자 주요이력

1949. 서울 출생

1968. 대광고등학교 졸업

1972.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75.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0.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2.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1984.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 변호사 개업(서울)

1990. - 1993.08 변호사강보현법률사무소 변호사

1993.08 - 2003.02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

2003.02 법무법인 화백과 법무법인 우방 합병, 법무법인 화우로 출범

2003.02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5.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2008.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2012년 현재)

2010.01 -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2012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제17회 사법시험, 제7기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사법연수원 2년 차 시보 생활을 부산에서 함께했다. 1980년~198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했을

때에는 그보다 앞선 1978년 5월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한 노무현 변호사와 교류가 이어졌다. 이후에도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관계가 지속됐다. 1990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재임 시기인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변론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